

# 새 정권 출범 초기 증시 강세...이재명 정부도 통할까

선거일 한달 후 코스피 9번 중 6번 올라  
李 “코스피 5,000 시대 열자”에 기대감  
전문가들 “불확실성 완화 주가 우호적”

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인 4일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타는 가운데 과거 9번의 대통령 선거 중 6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.

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22년까지 9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일 한달 후 주가가 선거일 전날 대비 오른 경우는 6번이었다.

최근 유진투자증권이 발간한 ‘대선과 주식시장’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19대 대선(3.1%)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0대 대선(3.0%)을 비롯해 모두 6차례 대선 이후 코스피가 오름세를 보였다.

지수 상승폭이 가장 컸던 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87년 13대 대선으로 대선 이후 한달 간 주가가 24.1% 급등했다.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15대 대선 때는 16.6% 올랐고, 김영삼 전 대통령(1992년 14대 4.9%), 전두환 전 대통령(1981년 12대 2.1%) 때도 올랐다.

노무현 전 대통령(2002년 16대 -10.3%), 이명박



**코스피 오르고 환율 내리고** 코스피가 2% 이상 오르며 2,770선을 넘긴 4일 서울 증시 하나은행 닐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.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71.87포인트(2.66%) 오른 2,770.84로 거래를 마쳤으며, 코스닥 지수는 9.92포인트(1.34%) 오른 750.21로 마쳤다. 한편 오후 3시30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/달러 환율은 3.6원 내린 1,369.5원을 기록했다.

전 대통령(2007년 17대 -6.8%), 박근혜 전 대통령(2012년 18대 -0.3%) 때는 지수가 하락했다.

대선 1년 후를 기준으로 봐도 역시 6번은 상승하고 3번은 하락했는데 노태우(92.4%), 김영삼(32.3%), 김대중(25.4%), 전두환(22.8%), 노무현(14.4%), 문재인(6.6%) 순이었다.

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당선 후 1년간 코스피 지수가 36.8% 하락했다. 윤석열(-7.8%), 박근혜(-0.9%) 때도 약세였다.

## 美 ‘50% 관세’ 현실로...엮친 데 덮친 韓철강 어찌나

中 저가공세·국내 경기 침체 수요 하락  
지난달 대미 수출 20.6% 감소 ‘직격탄’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(현지시간)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산 철강·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%에서 50%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‘미국발 철의 장막’이 현실화했다.

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려면 50% 고율 관세를 내야 하는 국내 철강 업체는 큰 충격에 빠졌다.

수년간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중국산 저가 철강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요 시장에서 국내 철강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잃은 데다, 건설 경기 침체로 국내 수요마저 쪼그라든 상황에서 ‘엮친 데 덮친 격’이 됐기 때문이다.

주요 수출품인 철강·알루미늄 50% 관세 철폐는 당장 새 정부의 대미 통상 협상에서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.

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 비중은 1위(13.06%)로, 일본(11.45%), 중국(9.95%), 인도(8.01%), 멕시코(7.55%)를 앞섰다.

미국 입장에서 철강 주요 수입 대상국 가운데 한국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(16%), 중국(15.4%), 멕시코(12.9%)에 이어 4위(6.2%)를 차지했다.

한국 철강 업계에선 포기할 수 없는 미국 시장의 진입 장벽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진 것이다.

트럼프 2기는 이미 지난 3월12일부터 모든 수입산 철강·알루미늄 제품에 25%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.

이에 따라 한국의 철강 수출은 곧바로 직격탄을 맞았다.

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-4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천400만달러로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.2% 감소했다.

지난해 수출 호조로 인한 기저효과로 올해 수출 감소 폭이 커졌지만, 같은 기간 미국을 제외한 대세계 철강 수출액이 28% 감소한 데 그친 것을 고려하면 미국발 관세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.

관세 부과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 5월 대미 철강 수출은 20.6% 감소했다.

고율 관세로 대미 수출 벽이 높아진 것은 향후에도 연쇄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.

## 광주·전남 기업 체감경기 제조·비제조업 동반 상승

5월 CCSI 전월比 각 3.3p·2.7p ↑  
6월 제조업 ‘불확실성’에 하락 전망

5월 광주·전남지역 기업의 체감경기가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 동반 상승했다.

하지만 제조업의 다음 달 전망은 오히려 하락해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4일 발표한 ‘2025년 5월 광주·전남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’에 따르면 5월 중 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기업심리지수(CCSI)가 모두 상승했다.

이번 조사는 지난 5월13일부터 21일까지 광주

·전남지역 601개 사업체 중 546개 업체(제조업 264개, 비제조업 282개)를 대상으로 진행됐다.

기업심리지수(CCSI)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 중 주요지수(제조업 5개, 비제조업 4개)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.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,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.

지역 제조업 CCSI는 93.8로 전월 대비 3.3p 상승했다. 이는 제품재고(+3.3p)와 생산(+1.8p) 관련 지수가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. 비제조업 역시 자금사정(+2.3p)과 채산성(+0.4p) 등이 호전되면서 CCSI가 93.3으로 전월보다 2.7p 올랐다.

반면 미래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.

비제조업의 6월 전망지수는 93.1로 3.5p 상승하며 기대감을 이어갔지만 제조업의 6월 전망 지수는 89.8로 전월 조사 때보다 3.1p 하락했다.

5월 중 제조업체들이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‘불확실한 경제상황’(23.7%)이었으며 ‘내수부진’(19.4%)과 ‘경쟁심화’(10.3%)가 뒤를 이었다. 특히 전월에 비해 ‘경쟁심화’(+6.6p)와 ‘불확실한 경제상황’(+2.2p)에 대한 응답 비중이 늘었다.

비제조업체들은 ‘내수부진’(27.3%)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했으며 이는 전월보다 비중이 3.1p 증가한 수치다. 이어 ‘인력난·인건비 상승’(19.5%), ‘불확실한 경제상황’(13.3%) 순이었다.

## 콘진원, ‘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’ 지역예선 개최

한국콘텐츠진흥원은 4일 “문화체육관광부, 국립특수교육원, 넷마블문화재단과 함께 ‘2025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’ 지역예선을 이날부터 오는 7월11일까지 약 1개월간 전국 17개 시

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다.

올해 지역예선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3천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내달 11일까지 예선을 치르게 되며 지역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은 오는 9월9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열리는 본선 및 결선에 출전하게 된다.

www.kjdaily.com

###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

### 광주·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

지역의 품에서,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!!

시내 지역

- 중앙지국 222-8171
- 산수지국 224-4188
- 학운지국 673-6836
- 화정지국 372-9140
- 금호지국 376-7153
- 풍암지국 603-0311
- 노대지국 674-3581

지방 지사

- 목포지사 061)270-8689
- 동문포지사 061)278-0740
- 남목포지사 061)245-3797
- 신안지사 061)980-8300
- 순천지사 061)746-1600
- 여수지사 061)651-6433

- 상무지국 453-2554
- 광천지국 374-2120
- 진월지국 676-2726
- 봉선지국 673-6836
- 백운지국 673-0123
- 두암지국 266-1920
- 농성지국 362-4102

- 유동지국 222-8171
- 운암지국 529-3548
- 용봉지국 261-1503
- 신가지국 954-1420
- 양산지국 574-3745
- 하남지국 951-9954
- 운남지국 952-1687

- 오치지국 261-9461
- 문흥지국 261-9462
- 일곡지국 573-3200
- 첨단지국 971-7374
- 치명지국 371-9584
- 수완지국 955-0451
- 광산지사 944-0993

- 무안지사 061)453-3645
- 함평지사 061)322-0882
- 영광지사 061)353-5133
- 장성지사 061)394-3636
- 완도지사 061)555-0134
- 진도지사 061)542-4330

▶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(구동1-21) ▶ 대표전화:062)650-2000 ▶ 구독문의:062)650-2022